3년 동안 시행해보라

지금 전하께서 참으로 백성을 갓난아이처럼 여겨 사랑하신다면, 지금 가난하여 구렁텅이에 빠진 백성들이 어찌 전하의 가슴속에 측은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후한(後漢) 때의 신하였던 유도(劉陶)[1]가 말하였습니다.

"하늘의 재앙은 임금의 살갗을 아프게 하는 게 없고, 지진과 일식·월식은 임금의 몸을 직접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의 어긋남을 무시하고 하늘의 노여움을 가볍게 여깁니다."

지금 하늘의 노여움이 극도에 도달하였고 백성들의 살 길이 막혀버렸는데도, 전하께서는 태평스럽게 보시면서 대책을 꾀하는 것도 없으니, 실로 유도의 이 말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

1 유도(劉陶): 후한 말의 정치가. 환관의 횡포를 상소했으나 환관들이 황건적과 내통한다고 무고하여 옥에서 목숨을 끊음

아! 황천(皇天)과 조종(祖宗)의 뜻이 전하께서 잘 다스리기를 바라겠습니까? 아니면 다스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까?

항상 생각합니다만, 전하께서는 영명하신 자질과 맑고 순수한 덕을 지니시고도 어진 마음을 미루어 넓혀 정사에 베풀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옛날 황희무도(荒嬉無度)[2]한 군주와 똑같이 위태롭고 혼란한 전철을 밟으려 하십니다. 이것이 제가 밤낮으로 번민하고 안타까워하며 마음 썩이고 뼈아파하는 까닭입니다.

전하께서 만약 저의 말을 망령스럽지 않다고 여기신다면, 깊이 생각하고 자세히 따져 보신 다음 대신(大臣)에게 자문하여 조금이라도 채택해 써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하께서는 저의 대책을 이용하여 적임자를 얻어 정책을 맡기십시오. 기강을 바로잡고 묵은 폐단을 경장(更張)[3]하는 데 있어 세속의 풍속에 막히거나 들뜬 논의에 동요되지 마십시오.

이와 같이 3년 동안 시행하였는데도 세상의 도의가 새롭게 되지 않거나 각종 사업의 성과가 드러나지 않거나 조정이 안정되지 않거나 백성이 편안하지 않으면, 저에게 임금을 속인 죄로써 다스리어 요망스러운 말을 하는 자의 징계로 삼으신다면 매우 다행으로 여기겠습니다.

---

2 황희무도(荒嬉無度): 주색에 빠져 음탕한 짓을 하며 마땅한 도리를 돌아보지 않음. 황음무도(荒淫無道)와 같은 말.

3 경장(更張): 폐단이 생긴 제도를 다시 새롭게 개혁하는 것

이 글은 개혁하여 위망한 나라를 구하라는 요지의 이 상소문의 말미이다. 선생이 올린 상소문을 채택해 3년 동안 시행해 보아서 효과가 없으면 임금을 속인 죄에 해당하는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그만큼 절박하면서 또 한편 확신에 찬 주장이라 하겠다.

하늘과 땅의 재앙과 이변은 예로부터 군주들이 근신하고 삼가는 대상이었다. 하늘의 경고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대 왕들은 이런 재앙과 이변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고, 적어도 그 때만은 마음을 가다듬어 바른 정치를 하려고 하였다. 그것이 신하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였든 아니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든 그렇게 해야만 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차적으로 여론 지탄의 대상이 되고 백성들의 민심을 달랠 길이 드물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생이 선조에게 "전하께서는 태평스럽게 보시면서 대책을 꾀하는 것도 없으니, 실로 유도(劉陶)의 이 말에 가깝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하고, 또 "옛날 황희무도(荒嬉無度)한 군주와 똑같이 위태롭고 혼란한 전철을 밟으려 하십니다."라고 한 말은 거의 인신공격성 발언에 가깝다. 황희무도한 행위는 폭군들이나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신하로서 임금에게 이렇게까지 말하려면 대단한 용기와 올곧은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말만 아니라 그에 합당한 대책까지

제시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흔히 어떤 일이 있을 때 불쑥 나서서 윗사람의 실책을 비판하거나 따지기는 쉽다. 그러나 그것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에 합당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쉽사리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대안 없이 인기만을 끌기 위해 아무 때나 나서서 떠드는 정치인들이나 소영웅주의자들은 많지만, 이렇게 대안을 내어 조목조목 제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지금 우리나라는 언론의 자유가 있으니 누구나 정부의 정책이나 또는 정치인들의 잘못을 비판할 수는 있다. 그것이 사실에 근거했든 아니든 간에 자유롭게 말하는 분위기다. 인기나 지지를 얻기 위해 국민을 편 가르기 하지 말고, 나라의 장래나 국민의 삶을 위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일이 무엇보다 아쉽다. 비록 대안 없이 비판만 하는 일도 필요하기는 해도 그러하다.

한문 원전 음미하기

天災不有痛於肌膚, 震蝕不卽損於聖體.
천 재 불 유 통 어 기 부 진 식 불 즉 손 어 성 체

故滅三光之謬, 輕上天之怒.
고 멸 삼 광 지 류 경 상 천 지 노

» 어휘 풀이

天災: 자연현상으로 생긴 재해. 천재지변/不: ~아니하다/有: ~을 가지고 있다/痛: 고통, 아픔/於: ~에, ~에서/肌膚: 살과 살갗/震蝕: 지진과 일식 · 월식/卽: 나아가다, 곧, 가까이하다/損: 손상시키다, 덜다/聖體: 성스러운 몸. 임금의 몸/故: 그러므로/蔑: 업신여기다/三光: 해와 달과 별/之: 어조사/謬: 어긋나다/輕: 가벼이 여기다/上天: 하늘/怒: 분노, 성내다

» 문장 구조

1. 크게 원인과 결과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2. '天災不有痛於肌膚, 震蝕不卽損於聖體'은 원인에 해당하는 두 개의 작은 병렬문으로 문장 구조는 동일하다. '天災不有痛於肌膚'은 주어+동사+목적의 구조로 된 문장으로 주어는 天災, 동사는 有, 痛於肌膚가 명사구로서 목적어 역할을 한다. 不은 동사나 형용사를 부정하는 말로서 여기서는 동사를 부정하고 있다. 명사나 명사구를 부장하는 말은 非이다. 직역하면 '하늘의 재앙은 살갗에 대한 고통을 가지고 있지 않다.'이다.
3. '震蝕不卽損於聖體'도 주어+동사+목적어의 구조인제 주어는 震蝕, 동사는 卽, 목적어는 損於聖體라는 명사구이다. 직역하면 '지진과 일 · 월식은 임금의 몸에 대한 손상을 가까이하지 않는다.'이다. 不은 동사를 부정하는 말이다.
4. '故蔑三光之謬, 輕上天之怒'도 병렬로 이루어진 두 문장으로 똑같은 구조이다. 따라서 두 문장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다. 두 문장 모두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문장의 형식은 주어+동사+목적어로 되어 있다. 故는 문장 전체

에 걸리는 접속사이고 '蔑三光之謬'의 동사는 蔑이고 三光之謬는 명사구로서 목적어이다. 三光은 謬를 꾸며주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어조사 之이다. '輕上天之怒'의 동사는 輕, 목적어는 上天之怒이다. 두 문장의 공통된 주어는 임금이다.

» 해석

하늘의 재앙은 임금의 살갗을 아프게 하는 게 없고, 지진과 일식(日蝕)·월식(月蝕)은 임금의 몸을 직접 손상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의 어긋남을 무시하고 하늘의 노여움을 가볍게 여긴다.